

제 1일

4월3일 월요일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요한복음 17:13~14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다가오면서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13절을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도록 유혹합니다. 돈으로, 쾌락으로, 성공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며 이 세상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통스런 십자가의 길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묵상1 나는 지금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가요?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가요?

묵상2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셨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2 일

4월4일 화요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마가복음 14:35~36

35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적으로 알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처절한 싸움이 기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도의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한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과정입니다.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며, 그 과정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과정입니다.

묵상1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묵상2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뜻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피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과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마가복음 15:33~34

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입니다. 이 절규 속에서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단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 때문에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 가운데 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 21:23, 갈 3:13)라는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묵상1 나는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던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묵상2 나는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힘있게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가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도를 가치있게 여기며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4일

4월6일 목요일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하시다

요한복음 19:25~27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
 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과 수치 중에도 그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예수님께 친형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합니다. 요한은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스승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요 1:13)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우리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가족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상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묵상1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막 3:3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며 돌보고 있습니까?

기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자신의 고통보다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고통과 아픔이 더 큰 사람이고 주님이 묶어두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투정하는 철없는 자입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돌보아야 할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5일

4월7일 금요일

예수님, 성경을 응하시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28~30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33년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왔다가는 세상 속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성정을 지닌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느끼셨고 수치를 당하셨으며, 울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셨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과 몰려오는 세상 생각들과 유혹들에 목말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 우리를 향한 구원에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의 말씀에 응하셨고, 그것을 이루는데 목말라하셨습니다.

묵상1 나는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묵상2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목마름을 지켜보면서 내가 목이 마르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느끼셨던 그 목마름을 생각하며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나는 그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 죄에 목마른 것을 봅니다. 주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겸허히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꺾이지 않으시다

요한복음 19:33~35

33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이스라엘을 위한 유월절 절기 예식은 양의 피를 흘리되, 그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 것’(민 9:12)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유월절 양의 속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죄수들은 아직 살아있었기에 그들의 다리를 쇠몽치로 쳐서 부러뜨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에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라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요 19:35)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예언의 성취를 끝까지 마무리 하고 계십니다.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까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하나도 꺾이지 않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묵상1 요한이 증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유월절 대속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나대신 죽으심을 나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묵상2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온전히 완성해가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도 하나님의 예정과 놀라운 경륜에 감사합니다. 성경의 일점일획도 변경됨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